

보낸 사람: [모비프렌대표이사](#)
받는 사람: peacetech@joseilbo.com; jshily@kbanker.co.kr; joon@mt.co.kr; maybe@mtn.co.kr; skkim@fntimes.com; hs6776@fntimes.com; chacha@ebn.co.kr; duri22@ebn.co.kr; nari34@ebn.co.kr; mooneh@ebn.co.kr; kang0623@ebn.co.kr; webmaster@ebn.co.kr; anckyj@cbs.co.kr; jshsoccer7@naver.com; ceoscore@ceoscore.co.kr; p45@ceoscore.co.kr; jojae@econovill.com; rgdsz@econovill.com; ppoiu2918@econovill.com; sisaon@sisaon.co.kr; press@betanews.net; catchrod@betanews.net; bodo@gamefocus.co.kr; jjong@gamefocus.co.kr; baeyo@gamefocus.co.kr; kuki@kmib.co.kr; tajo@kukinews.com; it@technoa.co.kr; technoa@technoa.co.kr; romancer@businesspost.co.kr; mjver@cnews.co.kr; lej@newsway.co.kr; xpressure@newsway.co.kr; jky@newsway.co.kr; han324@newsway.co.kr; office@mediapen.com; ais8959@mediapen.com; hkbs@hkbs.co.kr; jhl@hkbs.co.kr; ksh@hkbs.co.kr; dylwang@jeonpa.co.kr; press@a-news.co.kr; igon@bizwatch.co.kr; ict@bizwatch.co.kr; ekwns3211@newscj.com; thinkbig@newscj.com; yykim@newscj.com; 119@breaknews.com; mico911@dailian.co.kr; newskorea@newstown.co.kr; sun@cdnews.co.kr; sena@cdnews.co.kr; master@noteforum.co.kr; goora@noteforum.co.kr; news@techholic.co.kr; shineos@techholic.co.kr; news@brainbox.com; webmaster@mediaus.co.kr
참조: "[손경식 회장](#)"; yoyo0927@cj.net; jy.kong@cj.net; yongkyu.lee1@cj.net; cheolwoong.lee@cj.net; jaehee.youn@cj.net; inhwan.ryu@cj.net; hj.kim131@cj.net; seokyong.lee@cj.net; changgil.kim@cj.net; chanwoo.park@cj.net; sr.oh@cj.net; chunkyu.park@cj.net; ka.chang@cj.net; hanjin.park@cj.net; hanna.hwang@cj.net; jhlee@cj.net; gyung@cj.net; yj.im@cj.net
제목: 민주당 대구 북을 "홍의락 의원"의 CJ의 주장을 대변하는 녹취파일과 CJ의 무책임과 갑질을 고발하는 영상_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날짜: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오후 5:59:27

안녕하세요?

저는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입니다.

저는 CJ의 무책임한 갑질행포의 피해 당사자로서 CJ 이재현 회장을 국감장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4주째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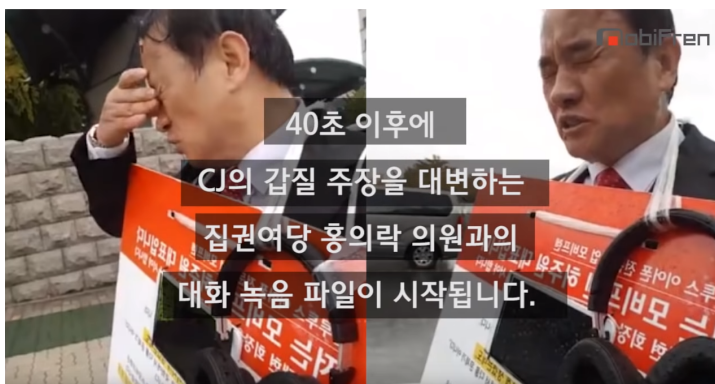
집권여당 민주당 산자위 간사 홍의락 의원은, CJ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현 회장의 국감 증언채택을 극렬히 반대 하고 있습니다. CJ 때문에 100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생겼는데도, **홍의락 의원은 "이는 기업과 기업의 문제로 국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CJ 이재현 회장의 증언 채택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CJ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홍의락 의원의 태도에 분노로 인해 말도 더듬고 대화중에 눈물의 호소를 했지만 저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추석연휴에 받아온 2500여명의 서명서를 가지고 갔지만 비아냥만 들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 보기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메일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본 발신자 "모비프렌 대표이사" 메일 주소는 임시로 만든 것입니다.

메일 회신을 원하시면 jwheo@mobifren.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일을 받으시는 분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전달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CJ의 고질적인 갑질황포 근절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

허주원/대표이사

Juwon Heo / CEO

(주)모비프렌

경북 구미시 인동52길 88

Mobile : 010-7352-5270

Tel : 054-474-2220

Fax : 054-474-2251

E-Mail : jwheo@mobifren.com

Website : www.mobifren.com

: www.mobifren.com

(주)모비프렌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7

Korea

(삼영빌딩 3층)

TEL : 02-336-2220

MobiFren Co.,Ltd

88, Indong52gil, Gumi, Gyeongbuk, Korea 730-300

Mobile :+82 10 7352 5270

Tel : +82 54 474 2220 (ext.400)

Fax : +82 54 474 2251

Email : jwheo@mobifren.com

Website

MobiFren Co.,Ltd, Seoul Office

3F,Samyong Bldg,437,Teheran-ro,Gangnam-gu,Seoul,

TEL :+82-2-336-2220

(주)지티텔레콤이 (주)모비프렌으로
Telecom changed to MobiFren

사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Please be noted that the company name of GT

All the other information are the same as before.